

나주시 공산면 농촌체험 마을 탈바꿈

국가 균형발전 '지역역량 강화사업' 대상지 선정 2012년까지 61억원 들여 다양한 테마공원 조성

나주시 공산면 일대가 정부의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대상지로 선정돼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이 조성되는 농촌체험 마을로 탈바꿈된다. 나주시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역량 강화사업' 대상지로 공산면이 선

정돼 오는 2012년까지 61억(국비 80%, 지방비 20%)원이 투입된다. 나주시는 공산면을 자연친화적인 휴식, 레저, 체험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관련 컨설팅 업체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산면은 영상 테마파크를 비롯해

황포돛배가 운행중인 '영산나루' 등 관광명소가 산재해 있어 이를 연계해 발전 계획이 추진될 경우 농촌체험 테마마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공산면을 주제가 있는 농촌관광마을, 아름다운 꽃천지 마을, 정해 영상 테마파크와 영산강 새싹채소 등 경관자원을 활용한 농촌 관광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황토메주 체험장 사업 ▲권

역 안내시스템 구축사업 ▲오산들 경관조성 사업 ▲사람제 수변공원화 사업 ▲봉산일대 등산로 정비 및 전망대 설치 사업 등이 도시민들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체험 자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병문 추진위원장은 "공산면이 농촌 관광마을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주민들도 이번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국화 천지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 연일 인파

함평 자연생태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2008 대한민국 국향대전'에 연일 인파가 몰리고 있다. 함평군은 개막 첫 번째 휴일인 지난 2일 하루 동안 2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드넓은 행사장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은 계단

식으로 층층이 자리잡은 국화 들녘의 아름다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으며, 수준 높은 국화 작품에 탄성을 내질렀다. 특히 국화로 재현된 국보 제 1호 승려문은 올해 국향대전 최고의 히트 아이템으로 단연 인기

를 끌었으며, 만리장성, 마법의 성, 에펠탑 등의 국화작품 주위에도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관광객들이 줄을 이었다. 관광객 운성자(54·광주시 서구 봉선동) 씨는 "지상 천국이라는 비유가 실감이 난다"며 "어느 한 부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과 노력이 듬뿍 배인 행사장이 정말 인상 깊다"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민가에서 300m 이내 소 사육 금지

나주시, 닭·오리 500m 돼지는 700m로

나주시가 가축 사육에 따른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했다. 나주시는 지난달 30일 10가구 이상 인구밀집지역의 경우 최소 300m 이내에서는 가축 사육을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소의 경우 300m 이내에서 사육이 불가능하며 닭, 오리, 개는 500m 이내, 돼지는 700m내에서는 사육할 수 없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특히 악취 민원이 많은 돼지의 경우 당초 500m에서 700m로 제한거리를 늘렸다. 또 산포와 금천면 일대에 건설되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주변도 500m 이내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시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조례를 개정,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기존 축사는 이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 /광산=기원태기자 wrtee@

광산구 설해 방지 '이상무'

제설 장비·자재 확보 만전

광산구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설해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제설 장비와 장비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광산구는 그동안 운용중인 제설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큰 불편을 겪었으나 올해 2천만원에 투입, 덤프트럭 부착형 제설기(사진) 2대를 구입함에 따라 폭설시 주민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광산=기원태기자 wrtee@



구는 상무로, 어등로 등 46개 노선 71.7km를 제설작업 주요 노선으로 지정하고 2만5천톤의 염화칼슘을 확보했다.

녹색 마을서 고구마 캐고 관광지 견학

담양군 홍보대사 24명 그린 투어

담양군이 산지 체험을 통한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해 군 홍보대사 그린 투어를 실시했다. 군은 지난달 30일 광주여성단체협의회 박영자 회장 등 담양 홍보대사 24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단지인 비룡을 비롯해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 관광지 견학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무정면 방울토마토와 멜론 생산현장을 둘러본후 녹색농촌체험 마을인 대덕면 시목마을에서 단감 수확과 고구마 캐기 등 다채로운 농산물 수확 현장체험을 했다. 그린투어에 참가한 홍보대사 배옥숙(여·42·광주시 북구 우산동)씨는 "최근 멜라민 파동으로 먹을거리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산지 체험을 통해 직접 친환경 농산물을 수확해보니 더욱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홍보대사를 통해 내년 1월까지 친환경



그린투어에 참가한 담양군 홍보대사들이 대덕면 시목마을에서 고구마 캐기 체험을 하고 있다.

경 농산물 'dy대숲마을' 공동브랜드인 딸기·멜론·방울토마토·쌀·한우 등 5개 품목을 비롯한 지역농산물 홍보와 도농간 산지 직거래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담양=노정훈기자 cjob17@

화순군 펠릿보일러 보급 확대

<목재 부산물 활용 연료>

올해 가정용 31대 설치...업체 6곳 참가 시연회

화순군이 고유가 시대를 맞아 숲가꾸기 부산물을 활용한 펠릿보일러 보급을 확대한다. 화순군은 지난달 30일 한천 자연휴양림에서 각 읍면 산업담당자와 펠릿보일러 지원 대상농가 및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펠릿보일러 시연회를 가졌다.

이번 시연회에는 펠릿보일러 설치업체 6개사가 참가해 시험가동 및 성능확인 등 농가보급을 위한 제품의 경쟁성 여부를 선 보였다. 펠릿은 숲 가꾸기 사업 등으로 생산되는 목재 부산물을 가공한 후 압축해 지름 4~10mm, 길이 3~5mm 크기로 생산되는 연료를 말한다. 펠릿보

일러 열량은 4천300~4천500kcal이며 연료비는 1kg당 300원 내외로 난방용 등유와 비교시 약 50%의 연료비 절감이 가능하다. 또 시설농가에서 펠릿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CO2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화순군은 올해 1억3천950만원의 사업비로 가정용 펠릿보일러 31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내년에 150여대를 보급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나섰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순천농협 전남지역 첫 예수금 9천억원 달성

전국 1,191개 농협중 9위

순천농협이 전남지역 농협 최초로 예수금 9천억원을 달성했다. 순천농협은 지난 달 15일 기준 예수금 9천억원을 달성, 최근 농협중앙회로부터 '9천억원 달성탑'을 수상했다. (사진) 이번 순천농협의 9천억원 달성탑은 전남지역 회원농협으로서는 첫 수상이며 전국 1천191개 회원농협 중 9위의 실적이다. 순천농협은 감성채 조합장과 전임직원이 합심 노력해 지난 9월 말 신용카드회원 1만명 달성탑 수상



에 이어 예수금 9천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감성채 조합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농협을 신뢰해준 순천시민과 고객들 덕분"이라며 "앞으로

도 순천농협은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고객과 함께 발전하는 창조형 농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의 이 한마디가 자식들에게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의 이 마음처럼 당신께서도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을 낳고, 건강이 행복을 키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게 합니다. 국제약품은 모든도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큐텐

비타민 A, C, E 병복 보충
-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예방
- 눈의 건조감과 시력 저하 예방
- 탈모, 피부미용, 기력 증진, 노화 방지
-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
- 심오활력제 및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효능
-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예방

아연의 보충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